용기(勇氣)에 대하여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 우리 학우들은 정동의 덕수궁 돌담길을 즐겨 산책하는 습성이 있었다. 정동에는 세칭 일류여고가 둘이나 있었고, 이들 학교 여학생 앞에서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일류고교의 엘리트 학생임을 뽐내고 싶은 사춘기의 욕망이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순형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

- 서울대 의과대학 및 대학원(의학박사)
-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및 학장
- 대한 기생충학회 회장
- 한국의과대학장 협의회 회장
- 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 서훈 : 국민훈장 동백장, 홍조근정훈장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 우리 학우들은 정동의 덕수궁 돌담길을 즐겨 산책하는 습성이 있었다. 정동에는 세칭 일류여고가 둘이나 있었고, 이들 학교 여학생 앞에서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일류고교의 엘리트 학생임을 뽐내고 싶은 사춘기의 욕망이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우리 고교 학우들의 우쭐한 백일몽을 산산이 깨는 일이 번번이 일어났으니 이는 역시 정동에 위치했던 모 사립학교 깡패들 때문이었다. 그때 그 학교는 깡패가 유난히 많았던 듯하다. 서울시내 고교생들의 각종 운동 시합 때면 두 맞수 학교의 응원단이 큰 몫을 하였는데, 그 학교는 운동도 잘 하였을 뿐 아니라 응원도 썩 잘해서 우리가 그 학교 응원가를 다 외울 정도였다. 운동시합 후에는 승패가 갈리고, 여기서 대개는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럴 때면 그 학교에는 용장이 많아 큰 활약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는 이에 당당히 맞설 위인이 없어 얻어맞거나 뿔뿔이 도망치기에 바빴다. 그러니 우리 학우들로서는 그 학교 학생들의 모습(챙을 편편하게 만든 교모를 쓰고 교복 위의 혹과 첫 단추는 풀어놓은)만 보아도 지레 주눅이 들곤 하던 터였다.

그런데 정동고개를 산책하다 이들을 만나면 그들의 대성일갈에 한다하는 앨리트들도 혼비백산 달아나기 마련이건만 우리 중에 기민하게 상황판단을 못하거나 좀 굼뜬 친구는 그들에게 붙잡혀 호되게 얻어맞기가 일쑤였다. 예쁘고 똑똑한 일류여고 여학생들 앞에서 폼 재러 갔다가 비참한 패자의 굴욕적인 모습만 노출시키는 일이 허다했던 것이다.

이런 꼴을 보다 못한 열혈 체육선생님은 "야, 이 비겁한 놈들아! 친구가 잡히면 죽든 살든 함께 달려들어 구해내야지, 거미 흩어지듯 도망만 하면 다냐? 영어, 수학 좀 잘하면 뭐해! 사람이 되어야지. 남자가 되어야지!' 하시며 체육시간마다 나무라곤 하셨다.

그런데 당시 훈육주임을 맡으셨던 대머리 영어선생님은 "깡패를 만나면 삼십육계가 제일 상책이고, 아니면 가랑이 밑으로라도 기어 나와 몸을 보전하고 후일을 기하라!' 며 한신의 고사를 인용하셨다. 우리는 헷갈렸다. 어느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야 옳은지.

원래 어려서부터 숫기가 없고 겁이 많아 학생 때는 교무실 들어가는 것부터 주춤거리고, 어른이 무엇을 물으면 더듬거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면 움츠러들고, 남에게 욕설 한번 시원스럽게 내뱉지 못하는 위인이니 친구를, 아니 맞서는 상대의 뺨따귀 한번 올려붙이지 못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니 일흔이 넘은 지금도 옛 훈육주임선생님의 가르침만 받들 뿐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의 성품 중 가장 모자라는 부분이 '용기'가 없다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래서 역설적이긴 하지만 용기에 관심이 많고, 용기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나와 동일시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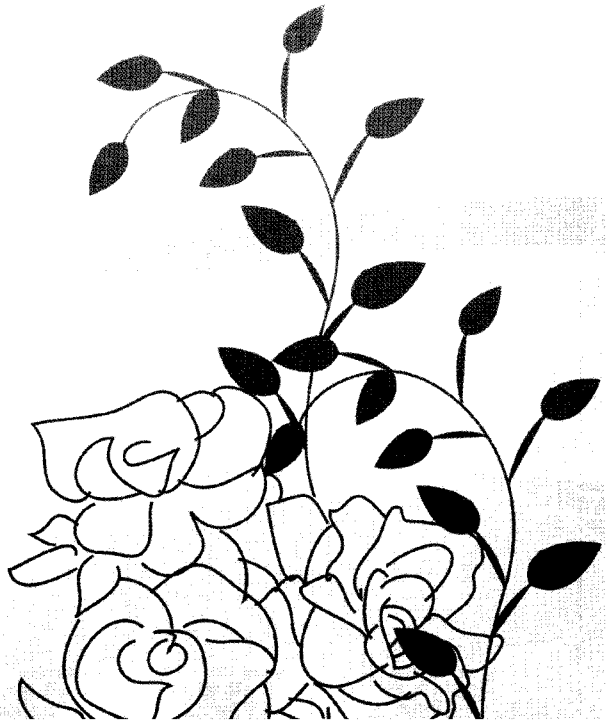
'용기' 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씩씩한 의기(義氣), 사물을 겁내지 않는 기개' 라 되어있는데 여기서 '의기' 를 다시 찾아보면 '정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개' 라는 뜻이다. 이성적으로 따져서 승산이 없는 상황에서 나서야 하느냐 물러서야 하느냐 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사전의 뜻을 빌자면 이런 상황에서의 행동지침은 승산을 따져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져 정의의 편에 서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만용(蠻勇)의 뜻을 찾아보니 '사리를 분간하지 않고 함부로 날뛰는 용맹' 이라 되어있다.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때로 다수의 폭력과 무자비하게 위협적인 상황을 당면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무모하게 맞서야 할지,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 현명한지 참으로 애매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옳고 그름과 냉정한 사리판단 위에서 씩씩하게 나서는 것이 '용기' 라는 말이 될 것이다. 나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용기 있는 장면은 중국의 천안문사태 때 줄지어선 탱크를 단신으로 막고 서있는 청년의 모습이었다.

우리나라는 정말 어렵게 민주화를 이룩하였다. 남들이 몇 백 년 걸려서 다져온 민주화를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이룩하느라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고초와 희생을 치렀던가! 그런데 옳게 발전해나가야 할 이 귀중한 민주주의가 요즘 와서 왜곡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주의가 갖는 가장 취약한 결함인 우민정치(愚民政治)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새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순진무구한 국민들을 선동하거나 인기에 영합하여 표심만 얻으려는 언행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난장판으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지 않은가? 목전의 이익만 추구하면서도 공익을 가장하는 양두구육의 정치지도자만 나무랄 일이 아니고 이들과 뇌화부동하는 대중도 문제가 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옳고 그름과 진실과 허위를 분간하는 사리판단에 입각해서 그야말로 용기 있게 나설 때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유하게 되리라 믿는다.

용기가 없으면 덕수궁 돌담길을 산책할 수 없듯이, 용기가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